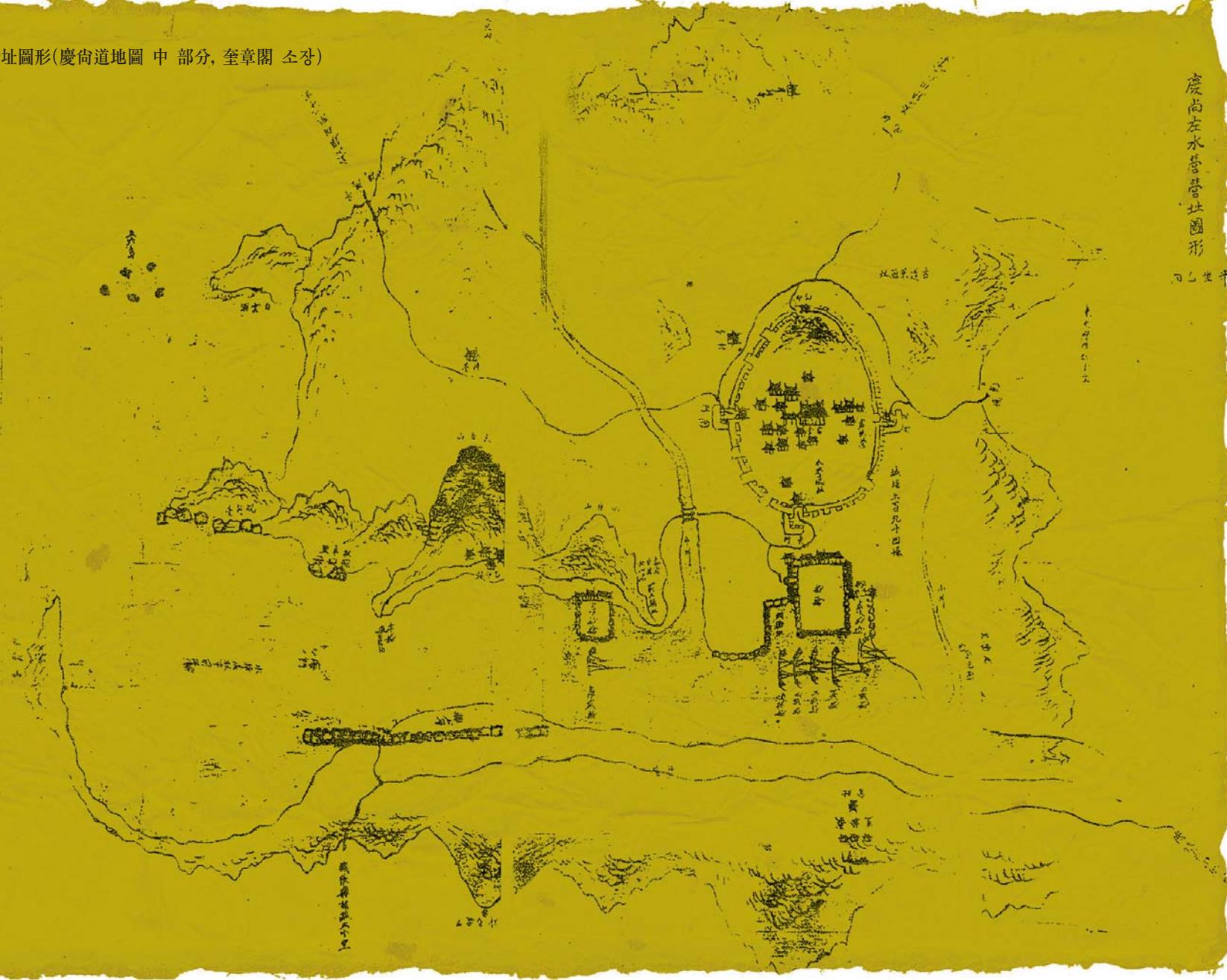


수영구의 문화 유산



慶尙左水營營址圖形(慶尙道地圖 中 部分,奎章閣 소장)



慶尙左水營營址圖形  
102號



수영의 문화유적



수영동 곰솔(천연기념물제270호)



수영동 푸조나무(천연기념물 제3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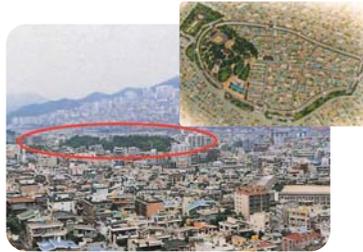
옥련선원(전통사찰지정 제28호)



영주암(전통사찰지정 제8호)



수영성 남문(시지정유형문화재 제17호)



좌수영성지(시지정 기념물 제8호)



장대굴순교지



백산점이대



25의용단(시지정 기념물 제12호)



정과정 유적지(시지정 기념물 제54호)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



박인로가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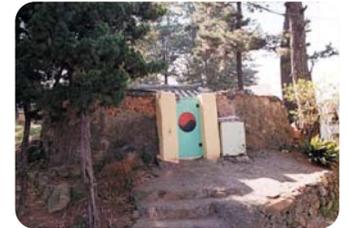
마에지장보살좌상(시지정문화재자료 제7호)



안용복장군 사당



송씨 할매당



조씨 할매당

수영의 무형문화재 및 문화시설



수영아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농청놀이(시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의 문화시설



수영민속예술관



수영사적원



수영구 도서관



아외상설무대



수영구 문화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KBS 방송국



MBC 방송국

수영의 문화유적



정과정유적지(시비)



정과정유적지(전경)



수사선정비



최영장군사(무민사)



선소유허비



최한복기념비



수영성 남문 터



수영성 정대 터

수영의 관광명소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수영사적공원



남천민락횃촌



금련산



수영강 산책로



수영강 분수



민락수변공원

## 수영의 관광명소



바다빛미술관

백 남 준  
Baek Nam Jun



1 디지털레이션 Digitation

제니홀처  
Jenny HOLZER



2 빛의 매세지 For Busan

심문섭  
Sim Mun Seop



3 섬으로 가는 길 Road to Island

샤를 드 모  
Charles de MEAUX



4 영상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장 피에르 레노  
Jean-Pierre RAYNAUD



5 생명의 원천 Le pot

안 카슬레  
Yann KERSALÉ



6 은하수 바다 Equime

## 수영의 축제



광안리어방축제(길놀이)



광안리어방축제(진두어화)



수영전통달집놀이



수영전통민속예술제



광대연극제



부산바다축제



부산불꽃축제



## 수영의 어제와 오늘

## 수영의 연혁



1950년대의 광안 · 남천지구



현재의 광안 · 남천지구



1960년대의 광안 · 수영지구



현재의 광안 · 수영지구



1960년대의 광안 · 민락지구



현재의 광안 · 민락지구

- |             |   |
|-------------|---|
| 삼한시대        | 진한 소국의 영역에 속함                               |
| 삼국시대        |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함                                |
| 통일신라시대      | 동래군에 속함 (경덕왕 때 명칭 바꿈)                       |
| 고려시대        | 동래현에 속함 (현종 연간에 일시적으로 울주에 속함)               |
| 조선시대        | 동래부 남촌면에 속함 (명종 때 동래부로 승격)                  |
| 1914.       | 동래군에 속함                                     |
| 1936. 4. 1  | 부산부 행정구역확장 부산진출장소                           |
| 1942. 10.1  | 동래군 수영과 해운대 일부 부산부 편입<br>(수영출장소 설치)         |
| 1949. 8.15  | 부제폐지 부산시로 개칭                                |
| 1953. 9.10  | 부산시 대연출장소 설치                                |
| 1957. 1. 1  | 구체실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6개 동)와<br>동래구 수영출장소(3개동) 개편 |
| 1963. 1. 1  | 부산직할시 승격(6구 7 출장소)                          |
| 1975. 10. 1 | 남구로 승격                                      |
| 1988. 5. 1  | 지방자치구제 실시(II차지구)                            |
| 1995. 1. 1  | 부산광역시로 명칭변경 (15구 1군)                        |
| 1995. 3. 1  | 수영구 신설                                      |

# 차례

##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18
2. 삼한시대	19
3. 삼국시대	19
4. 통일신라시대	20
5. 고려시대	20
6. 조선시대	21
7. 일제강점기	23
8. 해방이후	23
9. 수영구 탄생	24

## 제 2 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의 유래	26
2. 수영의 인물	35

##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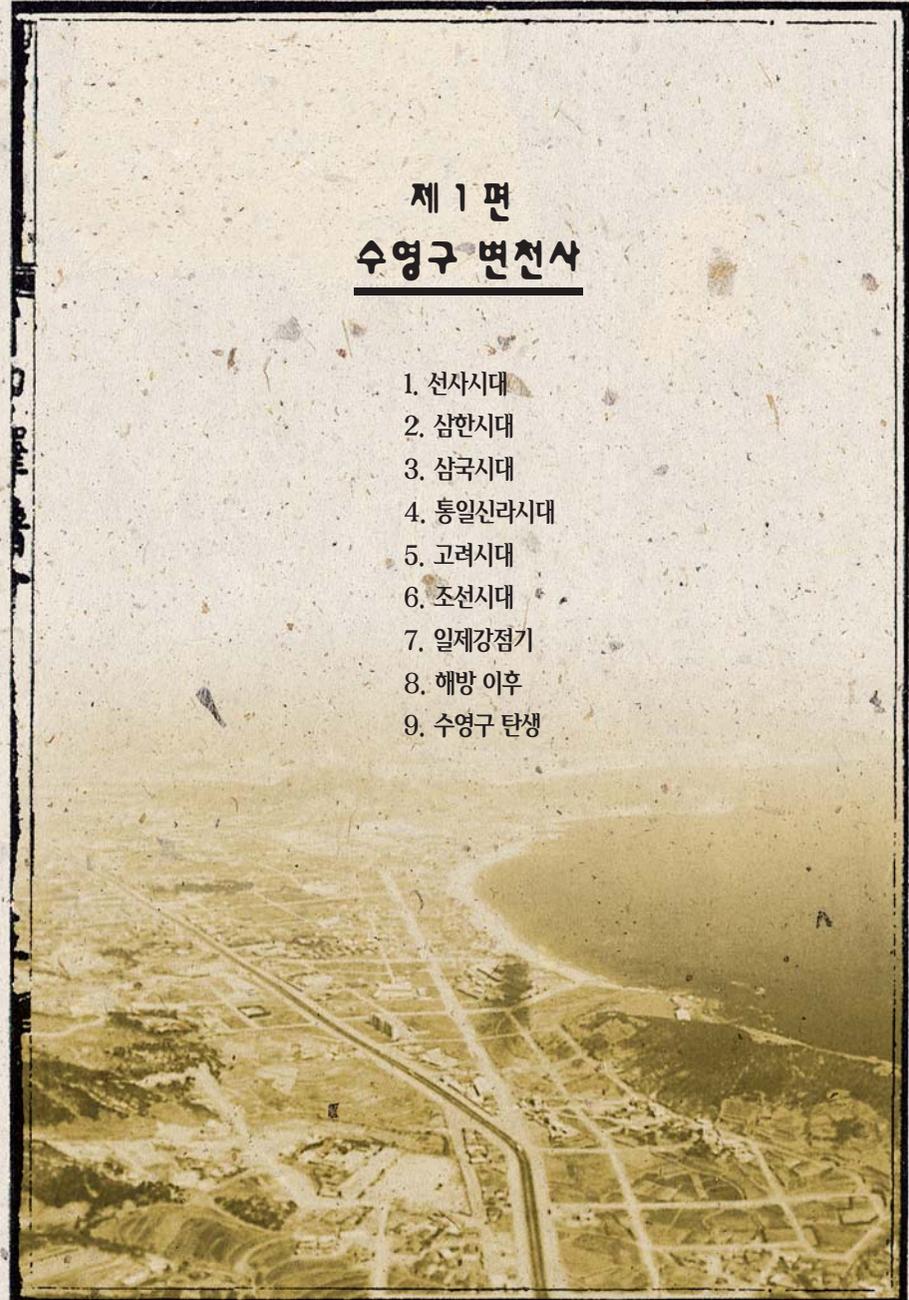
1. 천연기념물	40
2. 유형문화재	42
3. 무형문화재	50
4. 기타유적	53
5. 명승지	64
6.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76

## 부 록

1. 수영사적 자료	80
2. 수영의 문화시설	84
3. 수영자랑 10가지	87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92

##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2. 삼한시대
3. 삼국시대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일제강점기
8. 해방 이후
9. 수영구 탄생



##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수영구의 역사는 부산(동래)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동래) 속의 수영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 수영의 연혁과 행정구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 1. 선사시대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 부터로 수영구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 신시가지와 청사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 후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미숙한 단계이지만 농경생활의 시작과 정착생활이 확대되면서 정치집단의 등장으로 사회의 모습이 변모하여 갔다.

특히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지금의 부산시가지의 큰 틀이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었음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 시기에 부산(동래) 수영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의 수영강 유역에서 청동기 유물(좌수영 출토 마제석검 - B.C.3세기)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2,000여년 전부터 고대인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삼한시대

삼한시대(A.D 1세기~3세기경)의 부산(동래)은 철기가 보급된 시기로써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농작물 생산, 철기의 국내외 무역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재부를 축적하고 철제무기를 통한 정복전쟁으로 정치적인 지배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3세기경에 편찬된 중국 사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한전, 변진전에 그 당시 삼한인들의 생활과 사회상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이 삼한 중 지금의 부산(동래)과 김해 일대 즉 가야는 변진에 소속되어 있고 변진에 올라 있는 24국 중 부산(동래)은 독로국에 속해 있었다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진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 3.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부산(동래)은 신라의 거칠산국·군에 편제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가야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신라가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부산(동래)지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해 있었다.**

## 4.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8세기 중엽 경덕왕 시대에 이르러 종래의 고유한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정함에 따라 거칠산군도 동래군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부산지역의 명칭을 동래라 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동래군에 속해 있었다.**

## 5. 고려시대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는 시기는 중앙통치력의 약화를 틈타서 지방호족 세력의 활동이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후삼국의 맹주로 등장한 견훤과 왕건은 서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 결과 최후의 승리자가 된 왕건은 혼란한 지방 통치력 회복을 위하여 강압과 회유의 양면책을 적절히 시행하면서 중앙집권력 강화의 기초를 닦았고, 성종 때에는 지방의 중요 지점에 외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 구조는 제8대 현종 연간을 통하여 기본 골격이 구축되고, 이 때 동래군을 현으로 격하하여 일시적으로 울주(蔚州)에 소속시키고, 그 속현이었던 동평현은 양주(양산)에 소속 시켰다가 곧 환원 되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지방 군현의 변경은 정치적 성향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인종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것은 당시 동래 정씨와 고려 왕실과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고 정서가 모함을 받아 귀향형을 당하여 수영강변에 정자를 짓고 정과정곡을 지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실상을 입증함은 물론 국문학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심하여짐에 따라 부산(동래)지방은 국방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사》에 보면 충정왕 2년(1350), 공민왕 10년(1361), 우왕 2년(1376)에는 동래, 우왕2년 12월에는 동평현에 각각 왜구가 침범하여 동남 연안 지역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힌 내용이 전한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동래현에 속해 있었다.**

## 6. 조선시대

조선초기의 부산(동래)은 계속되는 왜구의 약탈 행위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대두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좌수영, 부산진성, 봉수대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 시기의 수영구는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해쪽의 해상방어를 담당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경상좌도의 수군 진영은 모두 수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임진왜란 때 관군의 패배와는 달리 수영민들의 충절과 기백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수영 25의용사에 모셔져 있다.

이들은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적에게 내 맡긴 채 도망하자, 진장도 지휘관도 없는 위급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죽음을 맹세하고 충의심을 발휘하여 적과 싸우다가 몸을 바쳐 죽어간 좌수영 소속의 수군과 성민 25명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 고장의 선열들이다.



## 7. 일제강점기

수영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동래군에 소속되었다. 1936년 4월 1일에 동래군 용주면과 남면 일부가 부산부로 편입되면서, 부산진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우암동, 감만동) 소속으로 되었다.

1942년 10월 1일에 동래군의 수영과 해운대의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수영출장소(수영동, 광안동, 민락동)가 설치되었다.

## 8. 해방이후

1949년 8월 15일에 부(府)제가 폐지되고 시(市)제가 실시되면서 수영구는 부산시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1953년 9월 10일에는 부산시 대연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남천동) 소속이 되었다.

1957년 1월 1일에는 구(區)제의 실시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3월 10일에 그 당시 구 승격 직전의 관할구역에 대부분 포함하는 부산시 직할 대연출장소로 승격하였다.

## 9. 수영구 탄생

1975년 10월 1일에 남구로 승격하였고,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구제(11자치구)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는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15구 1군)되고, 동년 3월 1일에 남구와 분립(分立)되어 수영구가 신설되었다.



〈광안리 해변 모습〉

## 제 2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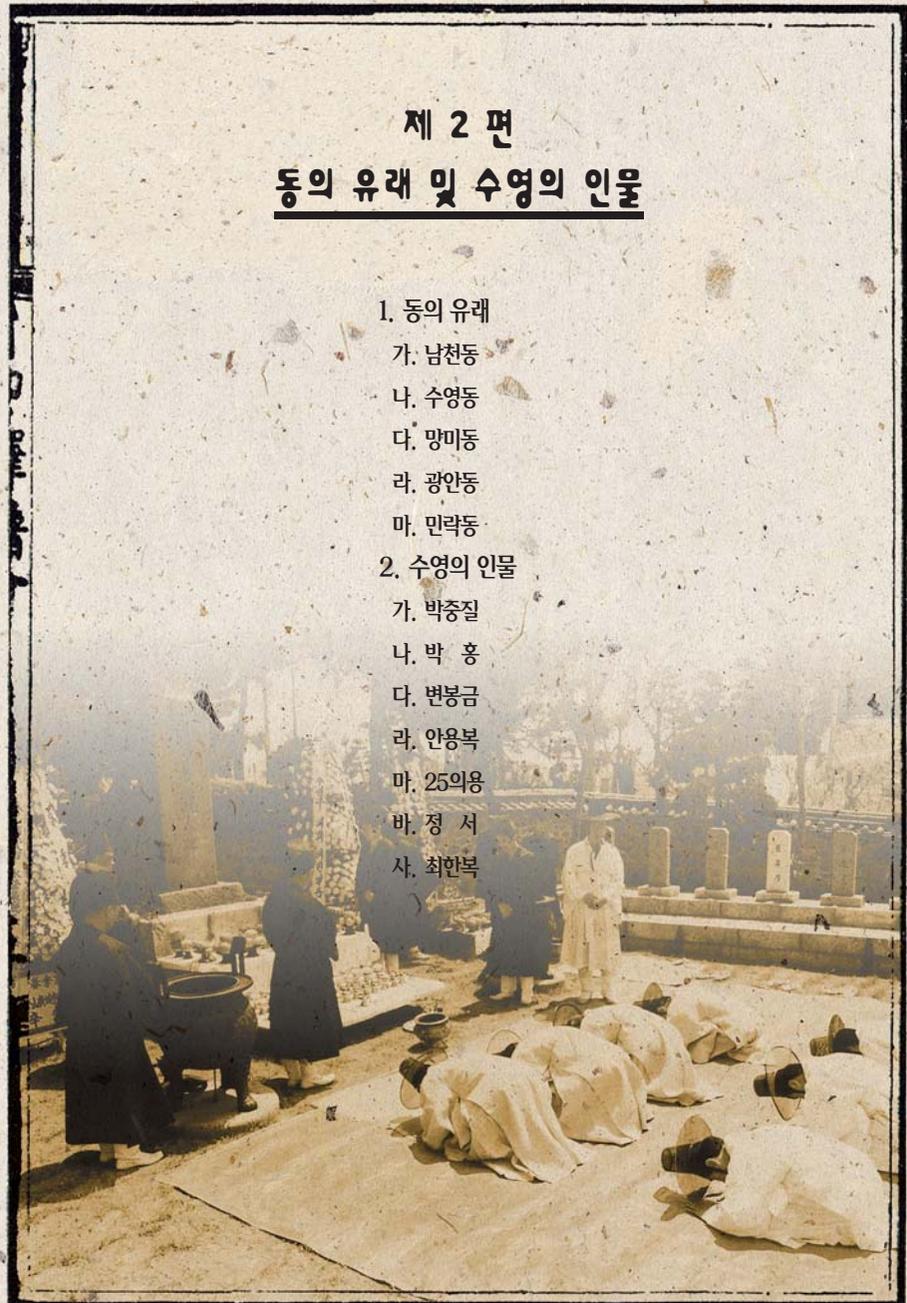
###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 1. 동의 유래

- 가. 남천동
- 나. 수영동
- 다. 망미동
- 라. 광안동
- 마. 민락동

#### 2. 수영의 인물

- 가. 박중질
- 나. 박 홍
- 다. 변봉금
- 라. 안용복
- 마. 25의용
- 바. 정 서
- 사. 최한복



## 제2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 1. 동의 유래

#### 가. 남천동(南川洞)

##### 1) 역사

○ 고로(古老)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400년 전이었다고 한다. 남천동의 역사가 오래된 한 증거로는 마을 뒷산인 금련산 기슭의 가장골에 언제부터 있어왔는지 모르지만 동제당이 있다. 남천동은 대연동과 남천동의 경계지점인 황령산과 금련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수영만 바다(광안리 해변)로 흘러드는 3,280m의 남천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에는 남천동과 대연동 사이의 모든 해안을 통칭하여 남천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남천이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에는 동래부 남촌면 남천리 였으나 1914년 4월 1일 동래군 용주면 남천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남천동, 1953년 9월 10일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남천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1983년 10월 1일 남천동이 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2동이 되었다.

##### 2) 마을 이름 유래

○ 죽골산 : 지금의 삼익 아파트 자리에는 예전에 야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형상이 죽은 용의 형상이라 하여 '죽은골산' 혹은 '중골산'이라 불렀다.



(1970년대 남천동 주변)

○ 남칭이 : 옛 사람들은 남천동을 남칭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남칭이'라 불렀다.

○ 범바우들 : 옛날 남천동의 가운데 있는 들판을 '범바우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남천동 산자락에 범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불렀다고 한다.

○ 흠대거렁 : 옛 사람들은 남천을 흠대거렁이라고도 불렀다. 골짜기에서 맑은 시냇물이 흠을 타고 흘러 내리듯 빠르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가장골 : 남천동의 뒷산 골짜기를 가장골이라 불렀다.

○ 자연마을 : 남천리, 대리마을, 사패마을, 삼패마을, 이패마을, 일패마을 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 《동래부지》《대동중담분과각동도록》 등에 기록이 나온다.

#### 나. 수영동(水營洞)

##### 1) 역사

○ 수영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생겨서 사람이 살아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고려 현종 12년(1021)에 동래군의 군치소(郡治所)를 지금의 수영에서 동래읍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수영로터리)

수영동은 조선시대에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남촌면 중에도 동부리, 서부리, 북문외리, 남문외리가 오늘날의 수영동에 해당된다. 수영동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

었으므로, 수군에서 ‘수(水) 자와 절도사영에서 ‘영(營) 자를 따와서 수영이라 한 데서 동명이 생겨났다.

수영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이 되었다.

## 2) 마을 이름의 유래

- 남 수 : 수영동을 일제강점기에는 남수리(南壽里)라고도 했다.
- 좌수영장 :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5일장으로 동래읍내장, 좌수영장, 부산장, 독지장, 하단장이 있었다.

좌수영 앞에 열렸던 좌수영장은 1876년 이후 자료에는 5일과 10일장으로 되어있다. 현재의 수영팔도시장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 다. 망미동(望美洞)

### 1) 역사

○ 망미동은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이었는데 현재의 망미1동 부산지방 병무청이 그 중심지였으며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에는 동래부 남촌이었으나 한말에는 동래부 남상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일제에 병합된 후 동래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일제 때 망미동은 동래군 남면 남수리(南壽里)라 하고, 송정리(崇亭里)는 망미리(望美里)라 했다. 망미리라 이름하게 된 유래는 고려시대 충신 정서(鄭絳)가 이곳에서(지금의 망미2동 수영천) 귀양살이를 하면서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북쪽을 바라보며(望) 임금(美)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뜻

에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망미동 망산(望山)의 망(望)자와 배미산(盃美山)의 미(美)자를 합쳐서 되었다는 말도 있다.

망미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79년 1월 1일 수영동에서 분리되어 망미동으로 독립, 1982년 9월 1일 망미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2동이 되었다.



(1960년대 수영천 주변)

## 2) 마을 이름의 유래

- 구락리(鷗樂里) : 망미2동의 수영강변에 옛날에는 흰 모래가 많았는데, 이곳에 흰 갈매기가 많이 날아와 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이곳이 빨이었는데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렇다는 말도 있다.
- 오옹건니 : 정서(鄭絳)가 정과정 모래톱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건너편 해운대 쪽의 들녘에 참외와 오이를 가꾸며 지냈는데, 오이 할아버지가 건너다니던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는 말도 있고, 이곳에서 용두갑까지 정서를 나룻배로 건네준 노어부가 있었는데 성씨가 오씨였으며, 오옹이 나룻배로 건네 주었다고 하여 이 나룻터를 오옹건니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지금의 망미2동 4-7번지 일원으로 1985년도에 토향회(土鄉會)에서 화강암으로 된 시비를 세워 놓았다.

○ 조치막(調治幕) : 망미1동 815번지 자리를 말하는데, 옛날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장소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니골(調泥谷)이라고도 한다.

○ 옥성골(獄城谷) : 망미1동 445번지, 지금의 부산지방병무청의 북편인데, 옛날에 이곳에 옥사(獄舍)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양골(혹은 시양골) : 망미1동 537번지, 옛날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고 서당골이라 한 것이 음이 변전하여 새양골 혹은 시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툫고개 : 배산의 동쪽에 있었던 고개로 지금의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앞길이 이에 해당된다.

툫고개의 이름은 배산 동쪽 기슭 입구 남쪽으로 향한 오목한 자리에 토곡마을이 있었다. 그 '토곡'으로 해서 '토곡고개'라 한것이 줄어들어 '툫고개'가 되고 '토고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토현(土峴)'이 된 것이다.

## 라. 광안동(廣安洞)

### 1) 역 사

○ 광안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이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문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8·15해방 전에는 수영로 윗쪽을 윗각단(윗 뜰), 아래쪽을 아래각단(아래 뜰)이라 불렀고, 남천동쪽을 옛날부터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범바위(虎岩)라 불러 왔다.

광안(廣安)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현재의 광안리 해수욕장인 남촌(南村) 앞 사장(沙場)을 남장(南場)이라 했는데, 그 남장에는 넓은(廣) 모래 언덕(岸)이 있어 廣岸이라 썼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으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동은 1740년(영조 16년) 동래부 남촌면 축산동에서 1903년(광무 7년) 동래부 남상면 광안리, 1910년 동래부 남면 광안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리, 1946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

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광안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광안 1·2동 분동, 1979년 8월 8일 광안 1동이 광안 1·3동으로 분동, 1982년 9월 1일 광안 2동이 2·4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1·2·3·4동이 되었다.



〈1950년대 광안동 주변〉

### 2) 마을 이름의 유래

○ 범바위 : 광안 4동의 베네딕트 수녀원 근처에 범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대골 : 장대란 적의 침략을 살피는 군사시설의 하나였고, 조선시대 수영중학교 뒷편에 장대(將臺)가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10월 1일 좌수영 수사가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했던 곳이라 한다.

○ 어구정(禦寇亭) : 현 광안동 842번지에 어구정이란 정자가 있었다. 이곳은 수영무사들의 궁술 훈련장이었다.

○ 칠포영(漆浦營) : 지금의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 임진왜란 직후에 수군이 주둔했던 칠포영이 있었는데, 무관 종4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을 흥해에서 옮겨와서 광안리 일대의 바다를 방위토록 했다.

## 마. 민락동(民樂洞)

### 1) 역 사

○ 민락동에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백산 북쪽의 '보리전



〈1960년대 민락동 해변〉

(포이진-包伊鎭) 마을과 백산 남쪽의 '널구지(널곶이-板串里) 마을은 약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일제 때는 널구지 마을을 평민동(平民洞)이라 했고, 보리전 마을을 덕민동(德民洞)이라 했는데, 이 두 마을을 합쳐서 민락동이라 불렀다.

민락(民樂)은 여민동락(與民同樂),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준말로서 임금은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 있다. 마을 고로(古老)들에 의하면 민락동의 유래는 수영 수사(水使)가 수졸(水卒)을 호령할 때 진산(鎭山-진조말산)에서 군악(軍樂)을 연주해서 그렇다고 하나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민락동은 8·15해방 전까지만 해도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50여 가구의 어촌이었으나, 1926년도에 시작된 중앙 부두 조성에 따라 중앙 부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이곳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1969년도에 완공된 신부산 구획정리사업으로 널구지에 56,100㎡(17,0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태창목재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민락동이 현대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민락동은 1740년(영조 16)에 동래부 남촌면 감포리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민동(널구지)과 덕민동(보리전)을 합하여 민락동이 되었고, 1936년 4월 1일 부산부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가 1941년 3월 1일 동래군 용주면에 소속되었다.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민락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민락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이 되었다.

## 2) 마을 이름의 유래

○ 널구지 : 지금의 민락초등학교 동편 민락교 부근을 널구지라 했다. 널

구지는 판곶(板串)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주변이 편편하게 넓은 터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보리전 : 지금의 수영교 근방을 보리전이라 하며, 이곳이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의 포이진(包伊鎭)이 있던 곳이다. 보리전이라 부르게 된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포이진의 음이 변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에 범법자가 곤장을 맞기 위하여 보리 양식을 매고 와서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광기전(廣器塵) : 각종 그릇 종류와 목물류를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산(白山) : 민락동의 주산으로 백산 꼭대기를 백자대(白紫臺)로 부르기도 했다. 백산이라 부르게 된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수영강의 안개가 이 산을 하얗게 덮고 있어서 붙여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영교 부근이 옛날에는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학들이 날아와 백산에 놀곤해서 백학산(白鶴山), 백산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백산의 모습이 수영을 두고 바다를 향해 달아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수영야류(무형문화재 제43호)의 제4과장에서는 담비(범-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주며 달래고 있다.

○ 포이포(包伊浦) : 원래 울산의 장기에 있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동래군 남촌(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수영교 근방이라 보고 있다.

○ 칠포리(漆浦里) : 원래 경북 흥해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서남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감포(甘浦) : 원래 경주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옴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옴겨 왔는데,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동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진조암(眞潮岩) : 민락동 남단 진조말산에 있는 자연석 바위이다. 조선시대 그 해의 첫 어로작업이 시작 되던 날, 수영 수사(水使)가 이곳에 나와 의자처럼 생긴 바위에 앉아 어부와 수군들을 격려하였다고 하며, 이곳은 수영강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고기가 많이 잡힌 곳으로 유명하다.

○ 첨이대(岾夷臺) : 일명 ‘첨이대’ 라고 하며 조선시대 이곳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었던 곳이다. 수영강 하구의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수영교 완공(1977. 11. 12)〉



〈수영교 개통(2007. 12. 10)〉

## 2. 수영의 인물

가. 박중질(朴仲質) : 고려말의 무관으로서 동래 현령을 하다가 나중에 수영지역의 염장관(소금을 만드는 염장의 관리)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최영장군이 죽음을 당하자 그의 막하 장수였던 박중질은 수영의 염부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족이 멸하는 화를 입었다고 한다. 수영지역에 모셔진 최영장군 사당에 그의 넋이 함께 있다고 보고 기려왔다고 하나 정확한 문헌적 연구가 된 것은 아니다.

나. 박 홍(朴 泓, 1534-1593) :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字)는 청원(淸源)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1556년(명종 11)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경상좌수사로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겁을 먹고 수영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갔던 관계로 역사에는 졸장(拙將)으로 남아 있다.

다. 변봉금(卞鳳今, 1880-1958) : 일제 강점기(日帝强占期)에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부부 항일투사(夫婦抗日闘士)로서 그의 남편은 최상운(崔尙雲)이다. 변봉금은 부산진 좌천동에서 조선조말 부산첨사 밑에서 무장을 지낸 변광지(卞光之)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19세에 30세 노총각인 최상운과 결혼하여 서울(연지동), 만주, 부산 수영 등지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수영에서는 당시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봉금의 집에 피신해서 숨어 살고 있었다.

**라. 안용복(安龍福) :** 수영출신으로 조선조 숙종 때 사람이다. 좌수영 수군의 능로군(노 젓는 병사)에 속해 있던 군졸로서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왜인들을 몰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 받아온 사람이다. 후세 사람들에게 의해 장군으로 봉해졌으며,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다.

**마. 25의용(義勇) :** 25의용이란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자 이 곳 수군과 성민 등 25인이 7년 동안 왜군과 맞서 싸운 향토 의병결사대를 말하는데, 25의용의 닛을 모셔놓은 25의용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다.

▶ 25義勇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水營 25義勇 諸人 (無順)

김옥계(金玉戒), 정인강(鄭仁彊), 최송엽(崔松葉), 최수만(崔守萬), 박지수(朴枝樹), 김팽량(金彭良), 박응복(朴應福), 심 남(沈 男), 이은춘(李銀春), 정수원(鄭壽元), 박 립(朴 林), 신 복(辛 福), 이 수(李 壽), 이희복(李希福), 최한연(崔汗連), 최한손(崔汗孫), 최막내(崔莫乃), 최말량(崔柰良), 김달망(金達亡), 김덕봉(金德奉), 이실정(李實貞), 김허농(金許弄), 주난금(朱難金), 김중수(金從守), 김진옥(金進玉)

**바. 정 서(鄭紱, 호는 과정 瓜亭) :** 고려 의종(毅宗) 때 충신으로 역을 하게 역모죄로 몰려 동래로 귀양을 와서 지금의 수영구 망미2동 4-7번지 인근의 수영천변에서 오이를 기르며 살았다. 그가 임금을 그리며 지은 유명한 가사인 정과정곡은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수영천변 정과정유적지에 그를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정과정 시비〉

내 님을 그리수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돌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루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몰헛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피오쇼셔.

(樂學軌範 卷五에서)

**사. 최한복(崔漢福 1895-1968) :** 수영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보성(普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서 향리의 후진들을 교육했다. 말년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몸소 세워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25의용단 제향의 맥을 잇기 위하여 몸소 집례를 주관하여 야간에 제를 올리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아 '수영야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후세에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정리에 힘을 쏟기도 하였으며,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국문학지에 알리는 등 수영지방을 위해 노력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이다.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천연기념물
2. 유형문화재
3. 무형문화재
4. 기타유적
5. 명승지
6.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 제3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 1. 천연기념물

#### 가. 좌수영 곶솔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270호(1982. 11. 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입구인 수영성 남문에서 10m 떨어진 곳의 보호철책 울타리 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400년 이상된 해송 종류의 오래된 나무로서, 좌수영성 수군(水軍)의 군신목(軍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27m, 나무 둘레는 4.5m, 수관의 폭은 23.5m 정도이다. 옛날 좌수영이 이곳에 진영을 갖추어 군선을 제조할 때면 이 나무에 목신(木神)이 있어 제조한 군선을 보호한다고 믿어 이 나무에 군사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좌수영 곶솔)

#### 나. 좌수영 푸조나무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311호(1982. 11. 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71번지(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남문에서 서쪽으로 약 50m정도 떨어진 보호 철책 울타리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500년 이상된 느릅나무과의 오래된 나무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地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17.2m, 수관의 폭은 24m 정도이다. 푸조나무에서 40m 떨어진 자리에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수영 고당(송씨할매당)이 있어 해마다 정월보름이면 한해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수영야류를 연희했다고 한다. 이 푸조나무에는 송씨할매의 닢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좌수영 푸조나무)

## 2. 유형문화재

### 가. 수영성 남문(水營城 南門)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선시대 경상좌수사영성(慶尙左水使營城)의 주문인 남문으로서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보존되어 있다.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보존되고 있다.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狛犬)이 석주(石柱)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남문은 원래 수영동 286-1번지의 좌수영성의 남문으로 있었으나, 한때 수영팔도시장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쪽으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쪽 입구로 다시 옮겨졌다.



(수영성 남문)

### 나.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일원
- 내 용 : 원래 경상좌수영은 감만이포(戡蠻夷浦, 남구 감만동)에 있었으나 태종 때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636년(인조 13)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감만이포로 옮겼으나, 감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1652년(효종 3)에 또 다시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년(고종 31)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혁파되기까지 243년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경상좌수영에는 무관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1개의 첨사영(僉使營)이 있었으며, 경상좌도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조선시대 일종의 해군기지인 좌수영(左水營)이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즈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좌수사(左水使)와 그 관리들)

현존하는 좌수영성이 언제 처음 축조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허화되고 그 후 1652년 감만이포에서 남촌 구기로 다시 이건(移建)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수영은 石城으로, 규모는 둘레 1,193보, 9,190여척, 높이는 13~16척 정도이고, 옹성이 3곳, 치성이 6~7곳이며 여장(女牆)은 375~384이며 4대문이 있었다.

동문을 영일문(迎日門), 서문을 호소문(虎嘯門), 남문을朱雀문(朱雀門), 북문을 공진문(拱辰門)이라 하였고, 이들 성문에는 각기 문루가 있었다.

성문은 일정한 시각에 폐문루(閉門樓)와 관해루(觀海樓)에 달아 둔 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열고 닫았다.

좌수영성 축성공사에 동원된 인력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성돌에 연양, 양산 등의 지명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 인근 각지의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랫부분의 큰 성곽돌을 보면 견고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축성 공사가 얼마나 고된 노역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문 중 남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동문·서문·북문은 각각 2층



(좌수영성지)



(1998년 발굴당시 수영성 서문지 치성 주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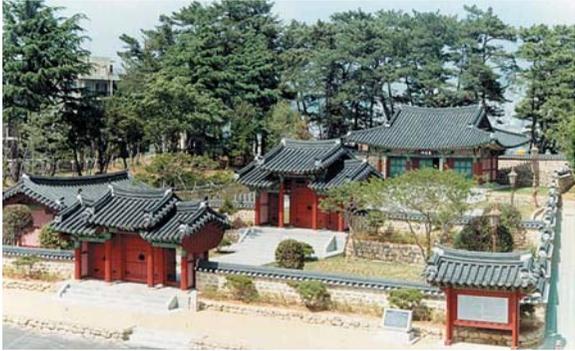
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내에는 4곳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영성의 총 길이는 1,480m)

현재 좌수영성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허물어지고 없으며 수영성의 주산인 수영사적공원 인근의 620m 정도만 남아 있다.

#### 다. 25의용단(二十五義勇壇)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366번지(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왜적과 항전도 하지 않고 수영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수영에 침입한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부녀자와 주민을 약탈, 살육하자 이를 보다 못한 성민이 죽기를 각오하고 7년 동안 유격전을 펼쳐 적에 대항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확인이 되는 25분의 의용을 찾아내어 그들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란 뜻을 붙여 충절을 기렸다.

그후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에 비를



세우고 의용단이라 이름하였다.

매년 춘·추(음력 3, 9월) 2회씩 추모 제향(향사)을 지내오다 2006년부터는 음력 9월말 정일(丁日) 추계에만 1회 지내고 있다.

- 25의용단 사당건립 및 정화 : 기존의 의용단은 지형적으로 저습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잔디 등 수목 생육이 어렵고 임진란 이후 40여년 동안 사당도 없이 의용 제인비가 노천에 설치되어 우천시 제향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역민의 정신적 뿌리인 의용의 충의 정신이 서려있는 제단이 행적에 비하여 시설이 너무 왜소하여 후손된 도리에 맞지 않다 하여,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구청과 수영지역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사당건립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규모는 사당 1동(56.1㎡), 관리사 1동(19.8㎡), 내삼문(17.8㎡), 외삼문(10.9㎡), 담장 개·보수, 의용단 앞 주차장 설치, 조경사업 등으로 1999년 9월 기초 사업계획을 출발점으로, 수영지역 원로 등과 함께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2000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0년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 4일자로 사

당문안 선정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5의용단 사당 현판 문안을 선정하고 2001년 2월2일 준공하였다.

본당인 사당(祠堂)문안은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킨 25의용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라는 뜻의 '의용사(義勇祠)', 내삼문(內三門)은 길이길이 품어 오래도록 잊지 않는다는 뜻의 '영회문(永懷門)', 외삼문(外三門)은 성심(誠心)을 간직한다는 뜻의 '존성문(存誠門)', 관리사(管理舍)는 25사당 관리 및 향사 봉행시 제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당(典祀堂)'으로 하였다.

#### ○ 향사 유래 과정

-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25인의 사적(事績)을 채방하여 정방록에 게재, 대상자 집집마다 의용지정 부착
-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공원에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추 2회 제향을 지냄(제주:좌수사)
- 1895년 갑오년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이 폐지되자 지방민이 제향(제주:수영면장)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면장이 부임하자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25의용 제인비〉

못하고 지역민들이 승모계를 조직하여 야간을 틈타 제실 등에 위패를 모셔놓고 제향을 올림(제주:수영기로회)

- 1974년 9월 10일~12월 9일 부산시에서 우풍에 낚은 비석단 3개소에 의용 제인비 25기를 건립하고 외삼문 1동과 한식담장을 설치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 1977년부터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주재하고 있다.

#### 라. 정과정 유적지(鄭瓜亭 遺蹟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2003.5.2)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17번지 일원(3,129.11㎡)
- 내 용 : 고려시대 문신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곳으로 '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 등에 의하면 과정(瓜亭)은 "동래부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는 없으나 그 터는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정과정 유적지는 우리말로 적혀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가사문학 연구



〈정과정 유적지〉

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충신연주시사' 및 '유배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정과정곡』을 지은 곳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지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2003년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정과정유적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의 정과정비와 자연석(경암)을 공원내로 이전하고 팔각정과 놀이마당,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200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 마.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2001. 5. 1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27-2

- 내 용 : 지금의 옥련선원(전통사찰 지정 제28호/98년 10월 17일) 옛 자리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백산사(白山寺)가 있었다. 이 마애불(磨崖佛)은 그 때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상(佛像)은 미륵불(彌勒佛)의 좌상이다. 조각 수법은 선각(線刻)으로 섬세하고 정지했으나 지금은 마멸이 심해서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때에 벼락이 쳐서 돌이 거꾸로 누워 현재 위치로 놓이게 되었다. 원래 이 도량은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龍華世界)를 지향하는 사찰로서 옛부터 호국의 원찰로 유명했다.



〈소재지 : 민락동 327-2번지〉

### 3. 무형문화재

#### 가. 수영야류(水營野遊)

- 지 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1971. 2.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
- 내 용 : 수영야류는 약 250여년 전부터 수영지역에 연희되어 오던 들놀이로서 초계 밤마리 장터(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에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수영지역의 서민들이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던 이 탈놀음은 준비과정과 길놀이와 군무, 탈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 등 4과장으로 연희된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사람 전체가 모여 함께 즐기던 마을축제의 한 형태이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수영야류〉

#### 나.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지 정 : 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1978. 4. 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
- 내 용 : 좌수영(左水營)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준말로 수영(水營)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 하였다. 수영은 연안 어업이 성하여 어업 협업체로 어방(漁坊)이 형성되었다. 어방놀이는 이 어방을 중심으로 멸치잡이와 고기잡이 교육을 하던 것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놀이이다. 후릿그물을 만들면서 부르던 내왕소리,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 당기면서 부르던 사리소리, 잡은고기를 퍼내어 소가래로 운반하며 부르던 가래소리, 모든 작업을 마치고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던 칭칭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만 일원에서 멸치잡이 할 때 부르던 노래가 불려지며 매년 여름 해수욕장이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좌수영어방놀이〉

## 다.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1972.2.1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229-1번지
- 내 용 : 수영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으로서 수영성 남·북문 주변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사 협업체인 농청이 형성되어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농청은 성인 남녀로서 구성되는데,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농청놀이는 한 해의 농삿일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모심기 노래 등 벼농사와 관련된 농요가 함께 불려진다.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김매기노래, 보리타작소리 등이 있다.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

## 4. 기타 유적

### 가. 안용복장군 사당

안용복장군은 조선시대 독도 및 동해안 수호의 대표적 인물로, 1967년 수영공원 산정에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려오던 것을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의 왜소함을 안타까이 여겨,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0년 7월 31일 착공, 2001년 3월 27일에 준공하였다.

수영공원 남단에 총 경역 337㎡(102평)규모로 사당1동(30.2㎡)을 짓고 현상공모를 통하여 동상1기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충혼탑을 이전하였다.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당 현판을, 독도를 지켰다는 뜻의 '수강사(守疆詞)'로 정하고 매년 4월 18일 연례제향을 올리고 있다.



〈안용복 장군 사당, 동상〉

## 나. 송씨 할매당(수영 고당)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마을을 이루면서 동시에 마을과 마을의 각 가정의 안녕을 수호하는 당산신을 모셔 왔다. 당산신에 대한 제의는 매년 1회 또는 2회의 제의를 갖되, 그 제주는 마을 회의에서 생기복덕과 정결을 구비한 노령층의 인물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당산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주로 선정되면 엄격한 금기생활을 하였으며, 제물의 구입 때나 조리 때도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겼을 때는 당산신으로부터 신벌(神罰)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당산제의 기능은 마을의 공동체이로써 주민 간의 화해와 단합에 있다.

○ 소재지 : 수영구 수영동 229-1번지(수영사적공원 입구)

○ 내 용 : 400여 년 전으로 추측되며 1981년 5월 11일 애향인 김기배 씨에 의하여 재건립되어 현재는 그의 아들인 김중수씨가 관리하고 있다. 송씨 할매당은 일제 때 왜병에게 항거한 송씨 할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송씨 제당을 세워 모시게 되었다. 성주신당 → 독신묘 → 곱솔나무 즉 송씨 할매제 → 독신제 → 당산나무제의 순으로 제가



(송씨 할매당)

치워지고 있으나 1960년대 이전에는 송씨 할매제 → 독신제 → 먼물샘제 → 거릿대제의 순으로 매년 선달 그믐 자정에 제를 지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가, 2006년부터 정월 대보름날 수영향우회에서 제를 올리고 있다. 특히 수영고당은 일반제당과는 달리 독신을 함께 모시고 제를 지내고 있으며 자식이 군대에 가거나 먼길을 떠날때 무사안녕을 기원하면 큰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 다. 조씨 할매당(주산 할매당)

○ 소재지 : 수영구 수영동 362번지(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씨 할매당은 1922년 3월 18일에 건립되었으며, 1년에 한번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의절차는 조씨 할매제 → 용왕제 → 25의용단 군사제 → 목신제 → 거릿대제의 순서이다. 당사의 정면에서 보아 오른쪽 칸은 제단에 사용하는 제기를 보관해 둔 고방이고, 왼쪽 칸은 조씨 할매를 모시는 신당으로 나무판자를 붙여 제당을 만들고 그 위에 산신도 액자를 세워 두었다.



(조씨 할매당)

## 라. 최영장군사당(무민사, 武愍祠)

- 소재지 : 옛 수영성의 동문밖 왼편의 큰바위 앞에 위치(현재 수호 노 인정 옆 수영동 507-9번지 소재)
- 내 용 : 옛날 최영장군이 왜구를 격퇴하던 장소라 하여 매년 음력 정월보름 새벽에 애향인 태덕수씨가 제를 지내오다 2006년부터 수영향우회에서 음력 3월 3일 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 뒤에는 선서바위라 하여 임진왜란때 향토 의병결사대인 25의용이 왜구와 싸워 죽기를 다짐한 큰 바위가 있다.

원래 이 자리는 강신무녀가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헐고 1973년 건립하였으나 훼손되어 2005년 5월(규모 7㎡) 목조·기와 팔작지붕으로 재건립하였다,



〈최영장군 사당〉

## 마. 장대골 순교지

종교 유적지인 수영장대골은 조선 고종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순교지이다.

박근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영장대에서 1868년 음력 8월 4일 군문효수를 당한 전교회장 이정식, 그의 아들 이관복, 며느리 박소사, 조카 이삼근·이월주·양재현·옥소사·차장득 등 8명이 순교하였다.

이들은 1977년 7월 17일 광안 본당 베드로 신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장대석 8개, 기와 조각, 동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유해는 현재 오륜대(부산 금정구 부곡동 산 15-1번지)에 있으며 기념비는 1988년 9월 30일 광안 천주교회에서 설립하였다.



〈장대골 순교비〉

## 바. 동래 고읍성(古邑城)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래현의 고적조에 고읍성이 나오는데 그 설명으로 “해운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축으로 둘레가 4,430척인데 지금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동래부지》 성곽조에



〈동래 고읍성〉

서는 고읍성을 “해운포의 수영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동래구에 동래읍이 형성되기 이전에 망미동에 동래읍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지방병무청의 인접지역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망미동 640-7번지 일원)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시행되어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유적지 보호를 위해 망미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옛 유적과 동일한 형태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 사. 수사선정비

《동래영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수사로 역임한 분이 임진년(1592년)에서 경술년(1850년)까지 258년간 188명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수사비는 수영성 남문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연대순으로 한자리에 세웠다. 수사선정비는 33기(수사 32기, 우후 1기)로서 연대는 조선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중 공덕을 칭송하는 비이다.



(수사선정비)

## 아. 박인로 가사비(朴仁老 歌辭碑)

노계 박인로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자 토향회(土鄉會)에서 민락동 진조말산 무궁화동산(민락동 110-13번지)에 가사비를 2002년 4월 6일 건립하였다. 가사비 전면에는 1598(선조31년)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침입과 병사들의 활약·승전·개선을 읊은 『태평사(太平詞)』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박인로 가사비 건립 취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박인로가사비)

## 자.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壬辰倭亂左水營無主亡靈薦度碑)

임진왜란때 당시 좌수영 수사였던 박홍(朴泓)은 군영을 이탈하여 도망갔으나 25의용을 비롯한 수영강변 토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왜적에 대항하다 죽어갔다. 전란이 끝난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무주(無主)의 망령(亡靈)이 된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1999년 8월 25일 토향회에서 백산 높은 양지 바른 곳에 이 비를 건립하였다. 옥련선원(민락동 327-2) 입

구에서 50m거리에 위치한다.

※ 천도(薦度) : 죽은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무주망령천도비〉

### 차. 최한복 기념비(崔韓福 記念碑)

최한복(1895-1968)은 수영출신으로 수영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교육자로서 애국자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민족정신과 고향사랑하기 교



〈최한복 기념비〉

육에 헌신해 오셨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야간에 25의용단 제항을 주관하셨고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써 수영아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의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를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특히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수영의 아름다움을 전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11월 20일 토향회에서 수영사적공원 25의용단 좌측 뒤편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전면에는 수영팔경의 서사를 새겼고, 후면에는 수영팔경가사비 건립 취지문을 새겼다.

### 카. 수영성(水營城) 남문(南門)터

수영성 남문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주문으로서 1972. 6. 2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현재는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있고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狛犬)이 석축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래 수영동 286-1번지에 있었



〈수영성 남문터〉

으나 수영사적공원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1962년 학교가 이전하면서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편 입구에 옮겨 보존되고 있다. 현재의 수영성 남문터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옛 수영성 남문 위치에서 10m정도 떨어진 수영동 297번지 도로위에 2002년 9월 건립하였다.

#### 타. 수영성(水營城) 장대(將臺)터

장대는 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치된 대를 말하며 좌수영이 있었을때 수군이 무술을 닦는 곳으로서 무술시합을 했던 곳이기도 한다. 이 무술시합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해졌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水使)가 수군의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령장이 주어졌다. 또한 이 장대에는 적의 침략을 살피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 광안리 앞바다에 침입해 오는 적선을 관측하고 지휘하는 척후소이며 지휘소였다. 또한 조선 고종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순교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위치는



〈수영성 장대터〉

수영중학교 뒤편 광안4동 547번지 일원으로 수영성 장대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광안4동 산33-3번지 체육공원내에 2003년 12월 건립하였다.

#### 하. 좌수영(左水營) 선소(船所) 유허비(遺虛碑)

좌수영 선소는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의 군선이 정박하던 수영강 하구를 말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군선이 여기서 출발하여 왜선을 격멸했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호국열이 깃든 장소이다. 현재의 선소 유허비는 1988년 4월 6일 부산의 뜻있는 학자들이 힘을 모아 유허비문과 노계 박인로 선상탄의 일부를 새겨 수영동 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기증받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 세웠다.



〈좌수영 선소 유허비〉

## 6. 명승지

### 가. 수영의 명산(名山)

수영을 형성하고 있는 내륙의 산으로는 남천동·광안동·수영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는 금련산(金蓮山, 415m)과 망미동의 북쪽 배산(背山)인 배산(盃山, 254.9m), 민락동을 형성하면서 바다로 불쑥 내밀려 수영만(水營灣)을 형성하고 있는 백산(白山, 129.5m)이 있다.

- 1) 금련산(金蓮山) : 금련산은 남천동, 광안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고 망미동의 남쪽 배산(背山)이 된다. 황령산과 몸을 같이 하면서 망미동의 배산(盃山)을 마주 보고 있다. 태백산맥이 부산으로 뻗어내려 금련산맥과 금정산맥으로 나뉠 때 금련산은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금련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산 정상에 능선들이 연꽃 모양이라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금련화(金蓮花)로 말미암아 불리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금련산〉

그런데 여자의 예쁜 발을 금련(金蓮)이라 하고, 미인의 정숙한 걸음 걸이를 금련보(金蓮步)라고도 한다. 금련산에는 반야암(般若岩)과 바라밀다사(波羅蜜多寺)가 있었지만(마하사 맞은 편) 지금은 없어지고 축대만 남아 있다. 또한 금련산에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연산모종-蓮山暮鐘) 으뜸이라 하여 수영팔경(水營八景)에 들어 있다.

- 2) 배 산(盃山) : 망미 1동 뒷산인 배산(254m)은 수영구와 연계구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산이다. 산 중턱에는 옛 거칠산국(居柒山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盃山城址)가 있으며, 이 지역이 옛 거칠산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옛부터 이 지역의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고려조에는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謙孝臺)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배 산〉



〈백 산〉

- 3) 백 산(白山) : 수영천이 바다와 어울리는 자리에 민락동의 배산(背山) 노릇을 하는 산이 백산이다. 높이는 129.5m정도이고 수영교의 오른편에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지금의 백산을 소백산, 대백산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백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백산 아래에 갈대가 우거져 있어 백학(白鶴)이 찾아들어 백학산(白鶴山)이라 한 것이 백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수영천과 바다

에 안개가 깔릴 때면 산 전체가 하얗게 보여 그렇게 불렸다는 말도 있다. 한편으로 이 산의 옛 이름이 향산(向山)인데 향산을 잘못 써서 백산(白山)이 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동래부지》나 《동래영지》에도 백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호랑이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들이 주술(呪術)하는 곳이 되어 있다. 또한, 백산의 형상이 마치 수영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이라 하여 수영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수영아류 제4과장(사자무과장)에는 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제공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 또한 백산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속칭 진조말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헌에는 진조말산이란 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있었던 진조암(眞潮岩)-일명 조망대(眺望臺) 격인 점이대(覬夷臺)의 다른 이름인 듯 함)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불려진 듯 하다.

#### 나. 수영의 명대(名臺)

- 1) 겸효대(謙孝臺) : 망미1동 뒷산인 배산(盃山) 산정에 고려시대의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동래현령 정추(鄭樞)나 조선시대 동래부사 윤훤(尹暄), 이춘원(李春元)의 시에도 겸효대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배산 산정의 겸효대에서 바라본 수영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으리라 여겨진다.
- 2) 망경대(望鏡臺) : 남천동 KBS 방송국 남쪽 아랫길에서 좀더 바다쪽으로 나간 자리(현재 수영구청 인근)에 두 토산(土山)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다 경관을 바라보기 좋은 언덕이 있었다. 그래서 거울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대(臺)라 하여 거울 경(鏡)자를 써서 망경대라 한 것 같다.
- 3) 점이대(覬夷臺) : 일명 ‘침이대’ 라고도 하며, 민락동 백산(白山) 남쪽, 속칭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이 바다를 침략하



(점이대 표석)

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척후처-斥候處)가 있던 곳이다. 일부 지도에는 이 자리를 점미대(覬美臺)라 적고 있으나, 점미대라면 아름다움을 점망(覬望) 한다는 뜻일테지만 이는 점이대가 변해서 생겨난 이름으로 여겨진다. 점이대 앞에는 기장(旗章)바위가 있어서 척후병이 척후를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백기를 올리고, 일이 발생하면 적기를 올렸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1998년 5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백산 정상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 다. 광안리해수욕장(廣安里海水浴場)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 동쪽에서 민락동 바다 매립지까지의 사장(沙場)을 말한다. 해수욕장은 총면적 82,000m<sup>2</sup>, 사장길이 1.4Km, 사장폭은 25~110m이다. 금련산에서 내린 질 좋은 사질(沙質)에 완만한 반월형(半月形)으로 휘어진 사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이다. 1964년 신부산 구획정리로 광안리 일대가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주위는 논과 밭이 있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수욕장 주변에 휴식공간인 만남의 광장, 해변공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야경〉

원 등을 조성하였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커피숍이 즐비하며, 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과 생선 횡집이 모여 있다. 백사장내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며 바다축제, 무용제 등 예술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변테마거리는 넓은 보행자 도로와 녹지 공간을 두어 사계절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0.9km)인 광안대교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야간이면 바다·빛미술관과 함께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명소이다.

## 라. 광안대교

광안리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km, 중앙현수교 900m, 폭 18~25m, 왕복 8차선의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으로서의 웅장한 모습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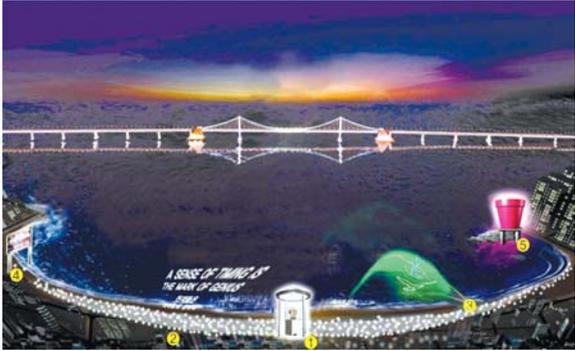
〈광안대교〉

상적인 야간 조명은 광안리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낭만과 휴식을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광안대교에서는 해맞이 축제와, 부산불꽃,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 마. 바다·빛미술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 「바다·빛미술관」은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3년여의 준비끝에 2007년 4월에 준공된 세계 최초의 ‘빛’을 주제로 한 야외미술관(Museum)으로 일반적인 도시경관조명과는 달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빛과 영상으로 채색하여 광안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열린 미술관으로 재창조하여 기존 광안대교 야경과 더불어 매일밤 자연과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을 연출한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선생의 ① ‘디지털레이션’은 광안리 중심에서 자연과 예술, 뉴미디어의 만남을 상징하고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처의 ② ‘빛의 메세지’는 백사장에 삶과 사회에 대한 함축적



(바다·빛미술관)

인 메시지를 프로젝터로 그려낸다. 심문섭 작가의 ③ ‘섬으로 가는 길’은 수막 스크린에 레이저를 투사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해변 왼쪽 전광판에서는 샤를 드 모의 ④ ‘영상 인터랙티브’가 상영되고 해변 오른쪽에는 장 피에르 레노의 화분 中 최대작인 ⑤ ‘생명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조명 연출가 얀 카슬레의 ‘은하수 바다’는 테마거리 1.4km를 따라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경관조명을 연출해 낸다.

광안리는 이제 새로운 ‘빛’의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피서를 위해 찾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예술과 품격이 숨쉬는 연중 휴양지이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 바. 민락 수변공원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길이 543m, 너비 60m이며, 면적은 33,000㎡ 규모로 4만



(민락 수변공원)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바닥에는 컬러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고 각종행사도 관람할 수 있는 3,040㎡에 달하는 스탠드는 만조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이다. 3,165㎡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사.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 ○ 수영민속예술관과 놀이마당

수영은 지리적으로 수영천과 광안리해변이 가까이 있어서, 일찍부터 농·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많았다. 수영야류,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농청놀이 등은 문화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민속유산으로서 수영구의 자랑이다.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사업은 '95년 7월 수영사적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5월 탄생하게 되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264㎡(한옥 2층), 놀이마당 1,221㎡(1,500석)이며, 부대시설은 사적원 및 실내 연습실 등이 있다. 수영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야류등 중요무형문화재와 전통민속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풍물·전통·춤·민요·민속등의 전통문화학교가 개설되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 ○ 수영사적원

수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것을 수영 역사의 현장인 수영사적공원내에 민속자료 등을 전시할 사적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영고적민속관 건물을 개·보수하여 좌수영 성지의 역사적 배경 소개와 전통 문화재, 민속놀이 소품 등을 전시하여 수영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수영의 특성, 역사 등을 알기 쉽게 하고 있다. 기존 건물 132㎡을 개·보수하여 99㎡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립 민속박물관등 다른 지역의 전시관을 참고로 하고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2000년 9월 공사에 착공 2001년 3월에 준공하였다.



〈사적원 내부〉

#### 아. 수영팔경(水營八景)

한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마지막 정기를 모아 부산 시내로 들어서서 금련산맥(金蓮山脈)을 이루고 그 금련산맥이 황령산(荒嶺山), 금련산(金蓮山)과 더불어 남천만을 이루었다.

수영의 서남쪽은 부산항의 부산만(釜山灣)이 되고, 동남쪽은 수영만과 수영강이 되었다. 물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수영은 그 전체가 명승지라 할 수 있다. 이 명승지에서 옛 사람은 수영팔경을 자랑했다. 수영 팔경은 지금의 수영동(수영성)에서 바라본 절경을 노래한 것으로서 수영의 향토 사학자 최한복(崔漢福)선생을 통해 국어학자 박지홍에 전해져 알려졌다고 한다.

- 1) 운대귀범(雲臺歸帆) : 해운대쪽에서 돌아오는 돛단배의 감회어린 정감을 노래한 것이다.
- 2) 봉대월출(烽臺月出) : 해운대 뒷산인 간비오산에 있었던 봉수대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노래 한 것이다.
- 3) 진두어화(津頭漁火) : 수영강 하구에 고기잡이 배의 불빛 모습을 노

래한 것이다.

- 4) 남장낙안(南場落雁) : 남촌(南村) 앞 사장을 남장(南場 -광안리 해변)이라 했고, 그 넓은(廣) 모래 언덕(岸)을 광안(廣岸)이라 했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자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리해변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5) 장산낙조(長山落照) : 해운대구의 주산(主山)인 장산(長山)에 해지는 모습이 되 비추어진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6) 백산만취(白山晚翠) : 해질녘 백산의 푸르름이 바다에 드리워진 경관을 노래한 것이다.
- 7) 재송직화(栽松織火) : 수영동에서 건너보이는 재송마을(재송동)의 짙은 벚불가의 불빛을 노래한 것이다.
- 8) 연산모종(蓮山暮鐘) : 해질녘 연산(蓮山-금련산 金蓮山) 저 멀리서 사바세계를 누비며 들려오는 범종소리를 말한다. 금련산에는 마하사와 반야암, 바라밀다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마하사만 남아 있다



〈진두어화(津頭漁火)재현-광안리어방축제〉



〈1960년대 광안리해수욕장〉



〈수영천 매립전 모습〉

## 7.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

1995년 3월 1일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사업은 비교적 정비복원이 용이하고 수영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 수영공원 일원의 문화재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휴식처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부산의 새로운 역사유적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좌수영 곶골(제270호), 좌수영 푸조나무(제311호),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영성 남문(제17호)을 비롯하여,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제12호), 좌수영성지(제8호)가 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제43호), 좌수영 어방놀이(제62호)와 시지정 무형문화재인 수영농청놀이(제2호)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수영민속 예술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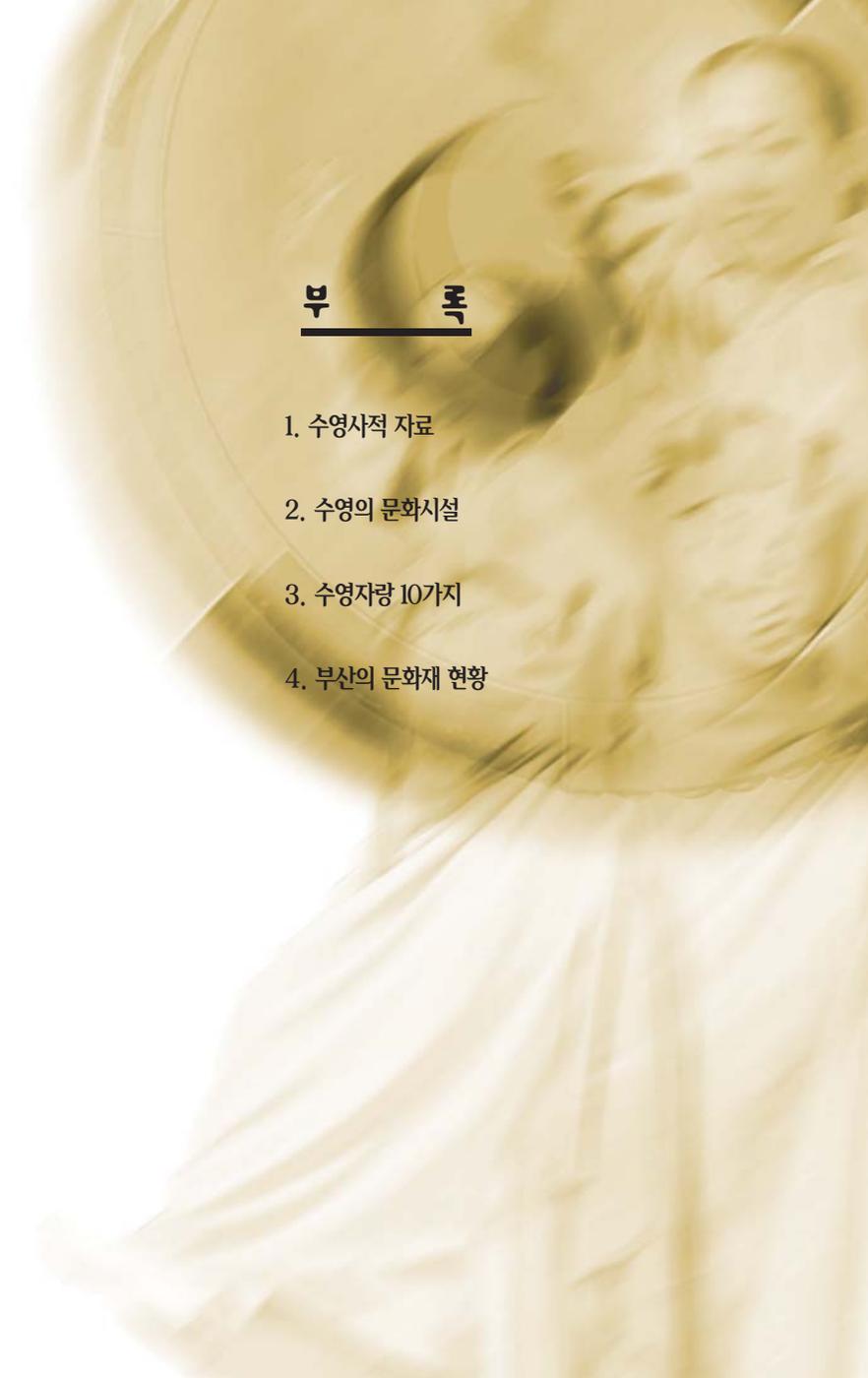


(수영사적공원 기본 정비계획 조감도)

- 주요 추진성과 (95~현재까지)
  - 토지보상, 성지발굴, 공원정비 공사 등
  -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2000년 5월 준공)
  - 성지진입도로 개설 L=100m, B=8m (2000년 6월 준공)
  - 공원내 화장실 건립 (2000년 12월 준공)
  - 25의용단 사당 건립 및 충혼탑 정화사업(2001년 2월 준공)
  - 안용복장군 사당 및 동상 건립(2001년 3월 준공)
  - 수영사적원 설치(2001년 3월 준공)
  - 25의용단 주차장 설치 및 수사선정비 이전(2002년 2월 준공)
  - 수사선정비(33기) 이전 건립(2002년 3월 준공)
  - 공원 확충, 녹지대 조성(794㎡), 수사비 보호책 설치(2007년 9월 준공)
  - 25의용사 앞 건물1동 매입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25의용사 앞 잔여건물 매입 정비
  - 서문1기(9㎡), 성곽복원(100m), 치성 2곳(72㎡)
  - 좌수영성지 성문복원(토지보상 15필지, 성문복원 3기)
  - 좌수영성지 잔여성곽 복원 및 문화관 건립 등



(1960년대 수영교차로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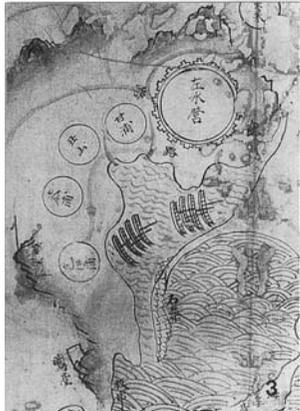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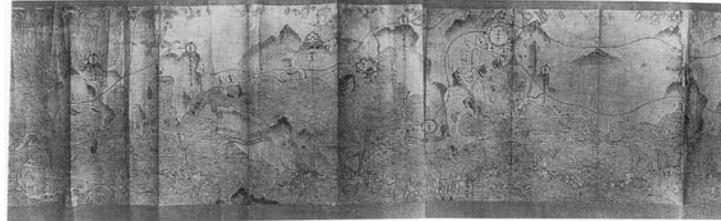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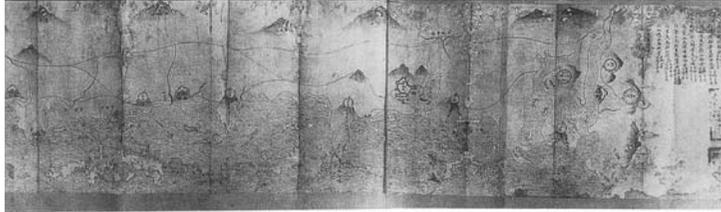


## 부 록

1. 수영사적 자료
2. 수영의 문화시설
3. 수영자랑 10가지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 1. 수영사적 자료

## ▣ 수영사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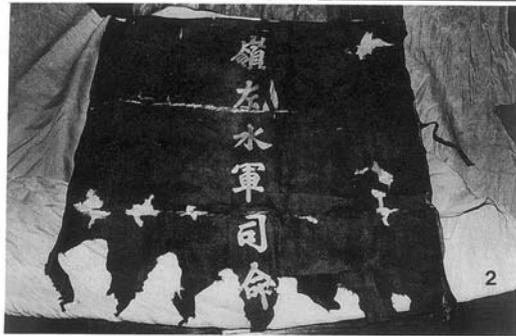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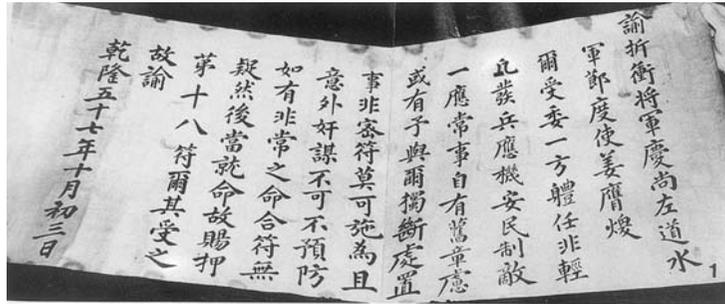
〈경상좌수영지도(규장각 소장, 339.8×48.4cm) 전도(1·2) 및 좌수영 세부도(3)·우측상 단병기문(4)〉

## ▣ 수영사적 자료



〈경상좌수사 강응환 초상화(1:정조하사, 1795년 제작) · 물기재 현액기문(2) · 물기재 현액(3)〉

▣ 수영사적 자료



〈경상좌수사 강응환 유서(1)·영좌수군사명기(2)·교지(3)〉

▣ 수영사적 자료



〈고려중요처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792년 작성)〉

## 2. 수영의 문화시설

### 가. 방송국

- 1) KBS부산방송총국 : 남천동 수영로 765에 자리잡고 있는 공영방송국으로서 1988년 5월 20일자로 남천동 새 사옥으로 옮긴 후 라디오, TV 등 각종 방송시설과 3,300석의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부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 2) MBC부산문화방송국 : 부산문화방송국(개국 : 1959. 4. 15. 중구 중앙동)은 1998년 4월 15일 개국 39주년을 맞이하여 수영구 민락동 백산길 47에 새로이 문을 열었다. 문화방송은 연건평 23,605㎡의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현대식 건물로서 TV, 라디오 방송 및 MBC아트홀 등을 갖춘 부산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업 방송국이다.



### 나. 수영구 도서관

이전 해운대교육청을 개·보수하여 2002년 7월 15일 개관한 수영구 도서관(남천1동 남천역4길 147)은 부지면적 6,171㎡, 연건평 2,748㎡(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70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 자료실을 비롯하여 각종 열람실과 60,000여종의 자료를 비치하고, 시청각실과 전시실에서는 영화감상, 강연회, 교양강좌,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는 종합문화공간이다.



### 다. 수영구 문화센터

수영구 문화센터(광안2동 광안해변로 173)는 주변경관이 뛰어난 광안리해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1,972㎡로 2007년 7월 1일 시설물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문화센터에는 전시실, 청소년 쉼터, 웰빙룸, 정보화교육장, 방송국, 관광안내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라. 광안리 해변 야외상설무대

1998년 2월 민락동 끝 광안리 해변가(민락타운 앞)에 조성된 야외무대는 매년 바다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제공을 위해 상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된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안리 해변 야외무대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욕구를 해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마.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은 광안4동 산60-3번지, 광안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금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집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자연과 학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수영자랑 10가지

### 광안대교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부산 센텀시티 사이를 잇는 길이 7.42km, 넓이 18~25m의 해상교량으로서 2층(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규모에 10만가 지 이상의 색상 연출이 가능한 첨단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공사비 7,899억원과 공사기간 8년(1994~2002년)을 소요하여 내진 1등급의 지진은 물론 평균 초속 45m의 태풍 및 높이 7m의 파도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 광안리해수욕장과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은 깨끗한수질과 반달 형태의 넓은 백사장, 그리고 낭만이 깃든 카페와 횃집, 녹지대, 야외무대, 해변테마거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해양관광명소이다. 바다·빛 미술관은 빛과 영상이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로서 매일밤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데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 6점이 설치되어 있다.



## 수영사적공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이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에 항거하여 순절한 25인의 의로운 넋을 모신 25의용사와 독도 수호에 공헌한 안용복 장군의 사당인 수강사, 수영성 남문, 천연기념물인 수영동 곰솔 및 푸조나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인 수영아류, 좌수영어방놀이 등을 보존하는 수영민속예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만의 멸치잡이 후리소리를 연희화한 놀이로 어로작업의 호흡을 맞추고 능률을 향상시키기위하여 부르던 어업 노동요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왕소리, 사리소리, 가래소리, 칭칭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영아류

약 250년 전부터 수영지역에서 행해지던 들놀음으로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 축제의 한 형태이다.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는 서민들의 놀이로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의 4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이다.



## 광안리어방축제

매년 4월경 수영의 전통을 주제로 광안리해변, 민락횃촌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봄축제이다. 화려한 길놀이 행사, 전통 어로작업인 진두어화 재현, 시민노래자랑, 민속공연, 작품전, 체험행사, 경연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 부산불꽃축제

2005년 “부산 APEC 정상 회의 개최”를 경축하기 위해 그 해 11월 1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졌던 해상 불꽃쇼가 기원으로서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광안대교 및 해수욕장 일원에서 화려한 불꽃잔치를 연출함으로써 해마다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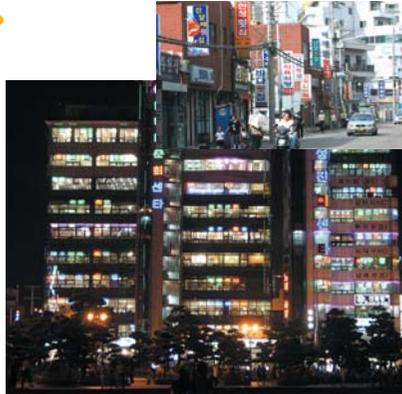
## 금련산

해발 415m인 금련산의 명칭은 산의 형태가 연꽃 모양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나타난 황금색 연꽃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반야암 등이 있었던 위치에는 아직 축대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자리잡아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남천·민락 횡촌

광안리해수욕장의 서쪽인 남천동과 동쪽인 민락동 지역에 300여개소가 넘는 횡집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남천·민락 횡촌”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 횡집타운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수영강과 수변공원

수영강은 건너편에 센텀시티가 위치할 뿐 아니라 강변 양쪽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 산책로, 친수공간 등이 조성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친수공원으로 친수호안, 화단, 벤치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길이 543m, 너비60m, 면적 33,000㎡(4만명 수용 가능) 규모이다.



##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 가. 국가지정문화재

#### 1) 국보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	제 69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제151-2호	조선시대	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제200호	통일신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영대2년명납석제호(永泰二年銘蠟石製壺)	제233호	통일신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동궐도(東闕圖)	제249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 2) 보물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삼층석탑(梵魚寺 三層石塔)	제250호	통일신라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4-5	제419-3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범어사 대웅전(梵魚寺 大雄殿)	제434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안중근의사 유묵(安重根義士 遺墨)	제569-6호 제569-16호	한말	동아대학교 박물관 중구 대청동
초충도수병(草蟲圖繡屏)	제595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웅기문토기(隆起文土器)	제597호	신석기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마두식각배(馬頭飾角杯)	제598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쌍자승자총통(雙字勝字銃筒)	제599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의령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宜寧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제731호	통일신라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대비사순칭경진하도병(趙大妃四旬稱慶陳賀圖屏)	제732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헌종기례도병(憲宗嘉禮圖屏)	제733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지자총통(地字銃筒)	제863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송기정대부상의중추원사도명익사사왕지(趙崇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察院議使司使王旨)	제953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중동
조서경 무과급제왕지(趙瑞卿 武科及第王旨)	제954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중동
박문수 초상(朴文秀 肖像)	제1189-2호	조선후기	남구 용호동 176-30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지장보살삼존도(地藏菩薩三尊圖)	제1287호	고려말~조선초	서구 서대신동2가
백자대호(白磁大壺)	제1440호	조선시대	남구 용호동 176-30
범어사 조계문(梵魚寺 曹溪門)	제1461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조선후기 문인 초상(朝鮮後期 文人肖像)	제1498호	조선후기	남구 용호동 176-30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李德成 肖像 및 關聯資料 一括)	제1501호	조선후기	남구 용호동 176-30

#### 3) 사적(史蹟)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패총(東萊貝塚)	제192호	삼한시대	동래구 낙민동
금정산성(金井山城)	제215호	조선시대	금정구 금성동 일원
동삼동패총(東三洞貝塚)	제266호	신석기시대	영도구 동삼동
복천동고분군(福泉洞古墳群)	제273호	삼국시대	동래구 복천동 일원

#### 4)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진배롱나무	제168호	약 800년	부산진구 양정 1동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群生地)	제176호	약 100년	금정구 청룡동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제179호	약 130종	북구, 사하구, 강서구 일원
구상반려암(球狀斑巖)	제267호	제1최약천만년전	부산진구 전포2동
좌수영 곶술	제270호	약 400년	수영구 수영동
구포동맹나무	제309호	약 500년	북구 구포동
좌수영 푸조나무	제311호	약 500년	수영구 수영동

#### 5) 명승(名勝)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영도 태종대(釜山 影島 太宗臺)	제17호		영도구 동삼동 산20-1 일원

## 6)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분야	소재지
동래아류(東萊野遊)	제18호	민속극	동래구 온천동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수영아류(水營野遊)	제43호	민속극	수영구 수영동수영고적민속보존협회
대금산조(大琴箏調)	제45호	기악	동래구 온천동대금산조보존회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제62호	민속놀이(어로)	수영구 수영동수영고적민속보존협회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제82-기호	무속	해운대구 비어동동해안별신굿보존회

## 7) 등록문화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釜山臨時首都政府廳舍)	제41호	1925년	서구 부민동 2가
부산 송정역(釜山 松亭驛)	제302호	1940년	해운대구 송정동 299-2

## 나. 부산시지정문화재

###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부동헌(東萊府東軒)	제1호	조선시대	동래구 수안동
다대포 객사(多大浦 客舍)	제3호	조선시대	사하구 다대동(물운대내)
망미루(望美樓)	제4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1동
독진대야문(獨鎭大衙門)	제5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동(금강공원내)
동래향교(東萊鄕校)	제6호	조선시대	동래구 명륜동
충렬사(忠烈祠)	제7호	조선시대	동래구 인락동
장관청(將官廳)	제8호	조선시대	동래구 수안동
오층석탑(五層石塔)	제9호	신라말~고려초	부산대학교 박물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0호	고려말~조선초	동아대학교 박물관
원효암 동면삼층석탑(元曉庵 東便三層石塔)	제11호	신라말~고려초	금정구 청룡동
원효암 서면삼층석탑(元曉庵 西便三層石塔)	제12호	신라말~고려초	금정구 청룡동
고려오층석탑(高麗五層石塔)	제13호	고려시대	동래구 온천동
만덕사지 당간지주(萬德寺址 幢竿支柱)	제14호	고려시대	북구 만덕동
범어사 당간지주(梵魚寺 幢竿支柱)	제15호	통일신라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범어사 석등(梵魚寺 石燈)	제16호	통일신라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경내)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수영성 남문(水營城 南門)	제17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수영공원)
동묘(銅子)	제18, 19호	청동기시대	부산진구 부전 2동
동파루(銅瓦頭)	제20호	청동기시대	부산진구 부전 2동
군관청(軍官廳)	제21호	조선시대	동래구 인락동(충렬사경내)
범방동삼층석탑(凡方洞三層石塔)	제23호	고려시대	강서구 범방동
동래부동하면고문서(東萊府東下面古文書)	제24호	한말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이인늘 청룡암시 목판(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제25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천수 책판(千手 冊版)	제26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어산집 책판(魚山集 冊版)	제27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기·범어사창건서적·범어사고적 판(梵魚寺紀·梵魚寺創建事蹟·梵魚寺古蹟 板)	제28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선문철요 책판(禪門鐵要 冊版)	제29호	한말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권왕문책판(인문판)	제30호	한말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태전화상주심경(太顛和尚注心經)	제32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함허어록(函虛語錄)	제33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지공직지(指空直指)	제34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제35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불설대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36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제37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금강변이바라밀경변상(金剛般若波羅密經變相)	제38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제39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몽산화상범어어록(蒙山和尚法語略錄)	제40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법화경(法華經)	제41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진언집(眞言集)	제42호	조선시대	서구 서대신동(내원정사)
조상경(造像擘)	제43호	조선시대	서구 서대신동(내원정사)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	제44호	조선시대	서구 서대신동(내원정사)
내원정사 수장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45호	조선시대	서구 서대신동(내원정사)
범어사명 유제시루(梵魚寺銘鑄製시루)	제46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목조관음보살좌상(木造觀音菩薩坐像)	제47호	조선시대	서구 서대신동(내원정사)
유원각선생매안고비(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	제48호	한말	부산박물관
포은시교(圃隱詩藁)	제49호	조선시대	진구 초읍동(시민도서관)
가덕도 등대(伽德島 燈臺)	제50호	1909년	강서구 대항동
범어사 사천왕도(梵魚寺 四天王圖)	제51호	1869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제석신중도(梵魚寺 帝釋神衆圖)	제52호	1817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범어사관음전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觀音殿白衣觀音菩薩圖)	제53호	1882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마하사 현왕도(摩訶寺 現王圖)	제54호	1792년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범어사 의상대사영정(梵魚寺 義湘大師影幀)	제55호	1767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진재 김윤겸필 영남기행화첩 (眞宰 金允謙筆 嶺南紀行畫帖)	제56호	조선 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기영각 시천(耆英閣 詩帖)	제57호	176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금강전도 12곡병(金剛全圖 十二曲屏)	제58호	조선 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동래고지도(東萊古地圖)	제59호	조선 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대원군 초상화(大院君 肖像畫)	제60호	한말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지장사왕도(福泉寺 地藏十王圖)	제61호	1892년	영도구 신선동3가(복천사)
복천사 아미타극락회상도 (福泉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62호	1892년	영도구 신선동3가(복천사)
범어사 팔상·나한·독성전 (梵魚寺 八相·羅漢·獨聖殿)	제63호	1906중건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제40 (大方廣佛華嚴經卷第40)	제64호	1728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조상경(福泉寺 造像經)	제65호	1575년	영도구 신선동3가(복천사)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제66호	1579년	영도구 신선동3가(복천사)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제67호	1882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제68호	1882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제69호	1882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제70호	1722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 那三尊佛像)	제71호	17~18세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제72호	17~18세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미륵전 석조연화대좌대석 (梵魚寺 彌勒殿 石造蓮花臺座下臺石)	제73호	통일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지수책거리병풍(刺繡冊巨里屏風)	제74호	조선 후기	서구 충무동1가 4-5

##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분 야	소 재 지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제2호	민속놀이(농요)	수영구 수영동수영구적민속보존협회
동래학춤(東萊鶴춤)	제3호	민속무용	동래구 온천동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지신밭기(東萊地神밭기)	제4호	민속놀이	동래구 온천동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총렬사제향(忠烈祠祭享)	제5호	제향	동래구 인락동(총렬사 인락서원)
부산농악(釜山農樂)	제6호	민속놀이	서구 서대신동(부산농악보존협회)
다대포후리소리	제7호	민속놀이(어로요)	시하구 다대동(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제8호	기악	동래구 온천동강태홍류 가야금산조보존회
부산영산재(釜音梵唄)	제9호	불교의식	사상구 모리동(부산영산재보존회)
동래고무(東萊鼓舞)	제10호	교방무용	동래구 온천동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구덕망개타다지기	제11호	민속놀이(노동요)	서구 서대신동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주상징(鑄戒, 鑄鍾)	제12호	금속범종제작	금정구 부곡동 235-5
사기장(沙器匠)	제13호	백지제작	기장군 일광면 원리 421-1
동래한량춤(東萊閑良춤)	제14호	민속무용	동래구 온천1동 산13-3

## 3) 기념물(記念物)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연산동고분군(蓮山洞古墳群)	제2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동 일원
만덕사지(萬德寺址)	제3호	고려시대	북구 만덕동
배산성지(盃山城址)	제4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6동 일원
동래읍성지(東萊邑城地)	제5호	조선시대	동래구 복천, 인락동 일원
구포왜성(龜浦倭城)	제6호	조선시대	북구 덕천동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제7호	조선시대	동구 범일동
좌수영성지(左水營城地)	제8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 일원
윤공단(尹公壇)	제9호	조선시대	시하구 다대동
정공단(鄭公壇)	제10호	조선시대	동구 좌천동
송공단(宋公壇)	제11호	조선시대	동래구 복천동
25의용단(二五義勇壇)	제12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수영공원내)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	제13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동(금강공원내)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	제14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 1동
금정산성부설비(金井山城復設碑)	제15호	조선시대	금정구 장전동
내주축성비(萊州築城碑)	제16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동(금강공원내)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제17호	조선시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척화비(斥和碑)	제18호	조선시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진지성서문성곽우주석 (釜山鎭支城西門城郭碑柱石)	제19호	조선시대	동구 범일동
정운공 손의비(鄭運公 殉義碑)	제20호	조선시대	사하구 다대동(물운대내)
동래남문비(東萊南門碑)	제21호	조선시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오륙도(五六島)	제22호		남구 옹호동
물운대(沒雲臺)	제27호		사하구 다대동
신선대(神仙臺)	제29호		남구 용당동
이섬교비(利涉橋碑)	제33호	조선시대	동래구 온천동(금강공원내)
천성진성(天城鎭城)	제34호	조선시대	강서구 천성동 일원
가덕도 척화비(加德島斥和碑)	제35호	조선시대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동백군생지(加德島冬百群生地)	제36호		강서구 대항동
장안사 대웅전(長安寺 大雄殿)	제37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기장 이길 봉수대(機長爾古烽臺)	제38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기장향교(機長鄕校)	제39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교리
기장읍성(機長邑城)	제40호	고려시대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일원
기장척화비(機長斥和碑)	제41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대번리
노포동 고분군(老圃洞古墳群)	제42호	삼국시대	금정구 노포동
생곡동 가달 고분군(生谷洞 加達 古墳群)	제43호	삼국시대	강서구 생곡동
범방동 패총(凡方洞貝塚)	제44호	신석기시대	강서구 범방동
해운대 석각(海雲臺 石刻)	제45호	고려시대	해운대구 우1동(동백섬 내)
「해운대」 동백섬(海雲臺 冬栢섬)	제46호		해운대구 우 1동
김해죽도왜성(金海竹島倭城)	제47호	조선시대	강서구 죽림, 봉림동 일원
기장죽성리왜성(機長竹城里倭城)	제48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舊 東洋拓植株式會社 釜山支店)	제49호	1929년	중구 대청동
기장 죽성리 해송(機長竹城里海松)	제50호	250~300년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부산지방기상청(釜山地方氣象廳)	제51호	1934년	중구 대청동
사차석교비(四處石橋碑)	제52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임시수도대통령관저(臨時首都大統領官邸)	제53호	1926년	서구 부민동
정과정 유적지(鄭瓜亭遺蹟地)	제54호	고려시대	수영구 망미2동
부산진일신여학교(釜山鎭日新女學校)	제55호	1905년	동구 좌전동
영도대교(影島大橋)	제56호	1934년	중구 중앙동~영도구 대교동

#### 4) 민속자료(民俗資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황실축원 장임수(皇室祝願 莊嚴繡)	제1호	한말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다대첨사영 갑주(多大僉使營 甲冑)	제2호	조선후기	동래구 안락동(충렬사)
동래영 갑주(東萊營 甲冑)	제3호	조선후기	동래구 안락동(충렬사)
동래영 구군복(東萊營 具軍服)	제4호	조선후기	동래구 안락동(충렬사)

#### 5)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반송삼절사(盤松三節祠)	제1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반송동
기장 남산봉수대(機長 南山烽燧臺)	제2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순치 8년명 청동은입사항완 (順治 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제3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도광명 유제양이부대발 (道光銘 鑰製兩耳附大鉢)	제4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동치원년명 범어시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金鼓)	제5호	조선시대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선방축성매(禪房祝聖牌)	제6호	한 말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미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제7호	조선시대	수영구 민락동(옥련선원)
동래부사유심선정비(東萊府使柳 滄善政碑)	제8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해원정사팔상도(海苑精舍八相圖)	제9호	1925년	연제구 연산동(해원정사)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0호	1860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1860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석가26보살도 (梵魚寺 釋迦二十六菩薩圖)	제12호	1887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梵魚寺 毘盧舍那佛會圖)	제13호	18~19C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칠성도(梵魚寺 七星圖)	제14호	1891년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마하사 영산회상도(摩訶寺 靈山會上圖)	제15호	1906년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摩訶寺 應眞殿 靈山會上圖)	제16호	1910년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문 화 재 명	지정번호	시 대	소 재 지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 (摩訶寺 應眞殿 十六羅漢圖)	제17호	1910년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마하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摩訶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尊像)	제18호	조선후기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摩訶寺 應眞殿 木造釋迦如來坐像)	제19호	조선후기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摩訶寺 應眞殿 石造羅漢像)	제20호	조선후기	연제구 연산동(마하사)
범어사 목조시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尊牌)	제21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제22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목조옴마니반메홍소통 (梵魚寺 木造옴마니반메홍疏筒)	제23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목제어피인통(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제24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연(梵魚寺 輦)	제25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범어사 바라(梵魚寺 鉢)	제26호	조선후기	금정구 청룡동(범어사)
선암사 괘불탱(仙巖寺 掛佛)	제27호	1926년	부산진구 부암동 628(선암사)
번관식필 영도교(卞寬植筆 影島橋)	제28호	1948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안적사 지장시왕도(安寂寺 地藏十王圖)	제29호	1919년	기장군 기장읍 내리(안적사)
안적사 아미타극락회상도 (安寂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30호	1874년	기장군 기장읍 내리(안적사)
대원사 독성탱(大願寺 獨聖幀)	제31호	19세기	부산진구 가야동(대원사)
미인도(美人圖)	제32호	한말	동아대학교박물관
연등사 석가영산회상도 (燃燈寺 釋迦靈山會上圖)	제33호	1924년	동구 좌천동(연등사)
청량사 석가모니후불탱 (淸凉寺 釋迦牟尼後佛幀)	제34호	1918년	강서구 명지동(청량사)
복천사 석가영산회상도 (福泉寺 釋迦靈山會上圖)	제35호	1921년	영도구 신선동 3가(복천사)
금정진 관아터(金井鎭 官衙址)	제36호	조선후기	금정구 금성동 280 일원
선암사 금고(仙巖寺 金鼓)	제37호	조선후기	부산진구 부암동 628(선암사)

## 참고 문헌

향도부산 제7호(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9)  
 부산시사 제1권(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의 내력(부산직할시, 1989)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남구지(부산광역시 남구, 1994)  
 수영 전통문화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97)  
 부산지명총람 제6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부산지명총람 제6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수영의 민속과 문화(부산광역시 수영구, 2005)  
 부산의 문화재(부산광역시, 2006)  
 그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등 관련자료

- 이 책은 수영구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여 수영구 문화공보과에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



## 수영 역사문화 탐방

2000년 12월 31일 初版 發行  
2003년 12월 31일 改訂版 1차發行  
2007년 12월 31일 改訂版 2차發行  
2009년 4월 17일 改訂版 3차發行

발 행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편 집 :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

051)610-4061, FAX.610-4069

자 문 : 이원균 (부산광역시문화재 위원)

홍연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인 쇄 : 한글그래픽스

051)632-7842, FAX.639-0305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26500-86100-37-0005

《비매품》



수영역사 문화 탐방



수영역사 문화 탐방

커버스토리

- 수영아류 말뚝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인 수영아류의 대표적 등장인물
- 수영성 남문 : 시지정 기념물 제2호
- 수영농청놀이 영각(令角) : 시지정무형문화재 제43호인 수영농청놀이의 대표적 악기이며 농촌의 두레작업이나 농악에서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던 관악기임

